

초청강연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미래사업 현황

KAI's Future Business Status and Vision

한 창 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미래사업부문장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대표적 기업인 스페이스X가 2020년 11월 유인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낸 후 지난 4월에는 첫 재활용 유인우주선, 크루-2 발사에 성공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과 우주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체가 주목받고 있으며 상업적인 목적의 우주분야 산업화가 가속화 일로에 있다.

KAI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무인기 등 사업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사업영역 확장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주, 무인기, 시뮬레이터 사업을 미래사업군으로 하여 체계적인 기술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우선, 위성분야는 본체 관련 부족기술 개발과 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독자 위성플랫폼을 확보할 계획이며 위성 본체 제작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업영역을 탑재체, 발사 서비스 및 위성 활용 정보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기 사업도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였고, 연료전지, 정밀타격 무인기 등은 자체연구를 수행 중이다.

KAI는 단계적으로 위성, 발사체, 무인기 분야에서 Value Chain 완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다. 최근 우주사업의 확장성 및 시너지를 고려하여 우주센터 건립하였으며 시험장비 등 필수인프라를 확보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업, 학계, 연구소가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 강소기업 발굴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력양성, S/W, 탑재체 등 부족기술 확보를 도모하고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